

01 교회소식

세상 끝에서 성령의 역사를 외치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하는 순수복음방송 GCN방송의 파급 효과와 볼맞이 신규 프로그램 소식.

02 생명의 말씀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권능은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증표이자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는 확실한 방법이다.

03 기획특집

오늘날에도 나타나는 소경 치료의 역사

실명된 눈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새롭게 창조되어 볼 수 있게 되는 등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에 나타난 권능의 역사.

04 간증

“에이즈가 치료되고 시력이 회복되다”

하나님 권능으로 에이즈의 고통에서 해방된 콩고민주공화국 은근 자 이재코 셀레스틴 성도와 시력이 좋아진 함진욱 집사 간증.

만민뉴스

제835호 2018년 4월 22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땅끝까지 복된 소식을 전하는 GCN방송 볼맞이 신규 프로그램 인기리에 방송돼



순수복음방송 GCN방송(www.gcntv.org)은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 간증, 수준 높은 기독교 문화 등을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제작·방송해 왔다. 최근에는 볼맞이 신규 프로그램이 전파를 타면서 시청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영적 믿음의 성장을 사모하는 시청자들을 위한 심화학습 프로그램 <하나님의 마음>, 인간 경작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무한하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설교 프로그램 <천지 창조의 섭리>,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모아 전하는 <권능> 외에도 기초 영어회화를 배우는 <헬로우 기초영어>, 중국어 기초를 배우는 <니하오마>, 행복한 만민 안에 일어나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여러 테마로 재미있게 펼친 이야기 <만민스토리>, 만민

찬양 신곡들을 여러 악기로 연주하고 소개하는 음악 프로그램 <아시나요>, 신나는 워십댄스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배워보아요> 등이다.

그동안 GCN방송은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바탕으로 창조의 섭리와 성경이 참임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창조와 과학>,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나타난 다양한 치료 사례를 의학 자료와 함께 증명해 성경이 참임을 입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WCDN>, 세계 선교 현장에 동행한 일꾼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다시 보는 해외 연합대성회 <회상>, 오늘의 말씀 성경 구절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프로그램 <묵상>, 올바른 신앙생활의 지침서가 되는 이재록 목사의 저서를 소개하는 <명서>, 어린이 프로그램 <알콩달콩 어여쁜 율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많은 시청자의 사랑을 받아왔다.

“...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마가복음 16:15)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지막 때 무수한 영혼을 구원할 효과적인 선교 방법으로 방송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에 뜻을 두고 기도하던 당회장 이재록 목사(GCN방송 이사장)는 2000년 1월, GCN방송의 전신인 만민TV를 개국했다. 이후 만민TV는 이재록 목사가 강사로 초청돼 열린 해외 연합대성회를 생중계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를 전 세계에 전파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2004년, 온 천하 만민에게 방송을 통한 복음 전파의 비전을 가진 세계 기독교인들인 연합해 GCN(Global Christian Network)이 결성됐고, 2005년 10월에는 뉴욕 공중파 ‘채널 17번’을 통해 첫 전파를 쏘아 올렸다. 이후 세계 우수 방송사와 협력 관계를 구축

해 공중파·위성·케이블 방송 매체로 170여 개국에 프로그램을 송출함으로써 말씀이 없어 기갈인 마지막 때, 참 진리를 알지 못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세상 끝에서 외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에 시청자들의 간증은 물론 기독교방송 관계자들의 피드백을 통해 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우리 교회 방송 환경에 최적화된 최고급 풀 HD 중계차를 도입해 3월 25일부터 풀 HD 생방송을 시작하였다. 공예배와 매일 밤 다니엘철야 기도회를 비롯 각종 교회 행사까지 기존 SD(일반화질) TV에 비해 4배의 고화질로 시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풀 HD 중계차는 16톤 무진동 트럭에 카메라, 지미집, 스위처, 음향믹서 등을 갖춰 비디오실, 오디오실, 제작실, 화물실로 꾸며졌으며, 전 장비가 GCN방송 자체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GCN방송과 협력해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러시아계 시청자들은 이재록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성경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전해 주셔서 큰 축복과 도움이 됩니다.”

- 미국 임팩트TV 유리 체르네츠키 사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흠 없는 성결의 복음과 만민의 뛰어난 기독교 문화 등 GCN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 콜롬비아 엔라세 방송 로살바 로드리게스 데 린콘 사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받고 악귀가 물러가고, 암, 폐병, 위장병 등 갖가지 질병이 치료될 뿐 아니라, 불임환자가 잉태하는 등 많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 인도 아를바꾸 GCN 아브라함 빈센트 사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그들의 삶에 빛이 되며, 기적을 보고 들으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 온두라스 JBN TV 에스테반 한탈 사장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요한복음 9:32~33)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
Senior Pastor Dr. Jaerock Lee

- 예수교연합성결회 총회장
- (사) 기독교 세계부흥선교협의회 상임총재
- (사) 국회사랑 구국기도 총연합회 공동총재
- 세계기독교방송네트워크(GCN) 이사장
- 세계기독교사네트워크(WCDN) 이사장
- 만민국제신학교(MIS) 이사장
- 연합성결신학교 이사장
- 목회학 박사, 명예신학 박사
-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등에 방송 설교
- 중앙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겨레, 한국경제신문, 시사뉴스, 크리스찬신문 등에 신앙칼럼 정기 게재
- 미국 뉴욕, 워싱턴, 볼티모어, 메릴랜드, L.A., 하와이, 일본,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페루, 러시아, 독일,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에스토니아 등에서 연합대성회 인도

구약 성경에는 눈먼 사람이 눈을 떴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 이는 이사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입니다. 이러한 권능은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증표이자,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1. 소경을 치료하신 예수님의 권능

요한복음 9장에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는 불행하게도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지요. 그를 본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 죄로 인함이오나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하며 그 이유를 여쭙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신 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니 그 눈이 밝아져 광명을 찾았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 치료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소경의 경우에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 “내 눈을 뜨게 해 주세요.”라고 간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만나 주시고 고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를 입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2. 소경이 권능의 역사로 치료받을 수 있었던 이유

1)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태어날 때부터 눈먼 그를 찾아오셔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 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진흙을 눈에 바른 후 물로 씻는다고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고, 결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대부분 믿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자신을 놀린다고 여기며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가로 가서 눈을 씻었고, 그 결과 태어나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눈이 밝아져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혹여 하나님 말씀이 내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치료와 응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2)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치료받은 후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것을 보면 선한 마음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

확하게 깨닫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강한 틀 때문에 영적으로 눈먼 사람과 다름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초지종을 물으니 그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고 담대히 전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다시 트집을 잡습니다.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이때에도 그는 굴하지 않고 “선지자이니다”라고 대답하지요. 자신의 눈을 고쳐 줄 수 있는 분이라면 분명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며 오히려 그를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시 66:18). 더구나 죄인에게 권능을 주셔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 결코 아니지요. 유대인들은 진실을 보아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요 9:31~33)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예수님의 권능으로 치료받아 눈을 떴다는 소식을 들으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악해 하나님 일을 보고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46편 8절에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했고, 이사가 29장 18절에는 “그날에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했습니다. 또한 이사가 35장 5절에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했지요.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의 틀과 악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았습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은 율법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선한 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진리를 알았습니다.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3) 은혜를 받은 후 새로운 삶을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한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는 등 인생의 갖가지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 다시금 세상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당장 아프고 힘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의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들 때에는 “치료해 주시면 앞으로는 주만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애타게 기도하지만 막상 치료돼 건강을 회복하고 축복을 받으면 자기 유익을 좇아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건강 등 육적인 문제를 해결받았다 해도 사람의 주인인 영혼은 구원의 길에서 떠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선한 중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만나 주시고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구원의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는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하시자, 그는 지체 없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지요. 이는 단순히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만을 좇으며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지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러한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질병을 치료해 주고 축복을 주니까 찾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진정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어둠의 일을 벗고 날마다 빛 가운데 행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요일 5:3)

이런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 어찌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신 대로 무엇이나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중한 질병이나 얽히고설킨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 해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는 중심의 고백과 함께 믿음의 행함을 보이면 눈먼 사람을 치료하신 예수님께서 질병의 치료는 물

론,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불통을 형통으로 바꿔 주시기 때문입니다.

3. 만민중앙교회에 나타난 권능의 역사

1982년 만민중앙교회 개척 이후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뜨는 일은 많았습니다. 선천적으로 보이지 않던 눈이 기도받은 뒤 보이는가 하면, 수많은 사람이 시력을 되찾아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벗고 간증하였지요.

그중에 2002년 7월, 온두라스 연합대성회 때의 간증입니다. 마리아라는 열두 살짜리 여자아이는 두 살 때 열병을 앓은 후 오른쪽 눈의 시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여러 방법을 써 보았지만 시력을 되찾을 수 없었고, 각막 이식 수술까지 받았으나 그마저도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수술이 실패하여 10년 동안 오른쪽 눈으로는 빛조차 볼 수 없었지요. 그러다가 성회 소식을 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전체 환자기도를 받은 뒤 마리아는 빛을 보기 시작하였고 곧 시력을 회복하였습니다.

이미 죽어 버린 눈의 신경이 하나님 권능으로 새롭게 창조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을 현장에서 목도한 온두라스 성도들은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신다!” 외치며 감격하였고, 온통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김용성 집사님(73세, 사진 5)은 당뇨로 인해 오른쪽 눈이 실명되어 빛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2016년 8월,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해 단에서 전체를 위한 환자기도를 받은 뒤 눈이 맑고 개운한 느낌이 들었고, 집에 돌아간 뒤에는 오른쪽 눈에 빛이 감지되었지요. 이후 점차 물체의 형태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이 좋아졌을 뿐 아니라 당뇨병도 치료받았습니다.

박명숙 권사님(62세, 사진 7)은 스물두 살 때 자치기 놀이를 하는 동생들 곁을 지나가다가 날아오는 막대기에 왼쪽 눈을 맞아 망막이 파열되었고 그 뒤 완전히 실명되어 빛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한쪽 눈으로 생활하던 중 오른쪽 눈마저 안질에 감염되어 시력이 급속히 떨어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를 받았는데, 실명된 왼쪽 눈과 시력이 약화된 오른쪽 눈을 동시에 치료받았지요. 그

뒤 바늘귀도 잘 꿰고 성경의 작은 글씨도 잘 보인다고 행복하였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에 사는 콤포라는 청년은 약 400 km 떨어진 고향을 방문해 가족을 전도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한국의 만민중앙교회에서 일어나는 권능의 역사를 전하고 제가 기도해 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가족에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달력을 선물로 주었지요. 그때 눈이 보이지 않던 그의 할머니가 “나도 이재록 목사님의 사진을 보고 싶다.”며 달력을 두 손에 들자,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달력을 펼치는 순간, 할머니의 시력이 회복되어 사진이 보인 것입니다. 할머니가 눈을 뜨는 권능의 역사를 체험한 그의 가족은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 소문이 온 마을에 퍼지면서 지교회를 세워 달라는 요청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권능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믿고 인정할 때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권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고쳐 주신 눈먼 사람과 같이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며 사모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을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부모는 당시 유대인들의 위협적인 모습에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 비겁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치료받은 소경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하며 담대히 고백합니다.

만민의 성도들은 주 안에서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치료받아 실명된 눈이 보이며 좋지 않은 시력이 회복되어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마음 깊이 새겨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며,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은 뒤 박남순 집사(72세)는 먼 거리의 사물도 잘 볼 수 있게 되었고, 천정우 형제(14세)는 색약, 연구찬 형제(18세)는 선천성 마비성 사시를, 박명선 집사(80세)는 야맹증을 치료받았다. 또한 김용성 집사(73세)는 실명된 오른쪽 눈이 보이게 되었으며, 배정희 권사(53세)는 눈 알레르기와 가려움증을 치료받았다. 박명숙 권사(62세)는 실명된 왼쪽 눈과 시력이 약화된 오른쪽 눈을 치료받았고, 김형모 집사(56세)는 좌우 0.7, 0.5에서 양안 시력이 1.0으로 좋아졌고, 송이희 집사(60세)는 노안을, 이아란 권사(51세)는 난시를, 양정례 집사(75세)는 근시를 치료받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사진은 1~11).



“15년간 고통받던 에이즈,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받았어요!”

은근자 이제코 셀레스틴 성도
(59세,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만민교회)

2003년, 남편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죽음의 그늘이 또다시 저희 가정에 엄습했습니다. 제가 ‘에이즈’라는 불치의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에이즈 치료 기관에서 무료로 주는 약을 정기적으로 받아 복용했지만 별 차도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심한 두통과 위 통증에 시달리고 식욕도 떨어지며, 살도 많이 빠졌지요. 제 병도 큰 문제였지만 더욱 마음이 아팠던 것은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보살펴 주지도 못해 남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저마저 병들어 죽고 나면 부모 없는

고아가 될 아이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러던 2016년 4월, 심신이 지쳐서 이제는 살 소망조차 끊겨가고 있던 중 이웃 은구부 베르나데테 성도의 전도로 킨샤사만민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으며, 당회장 이제록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늘 슬프고 우울했던 제 삶과 생각이 180도로 바뀌게 되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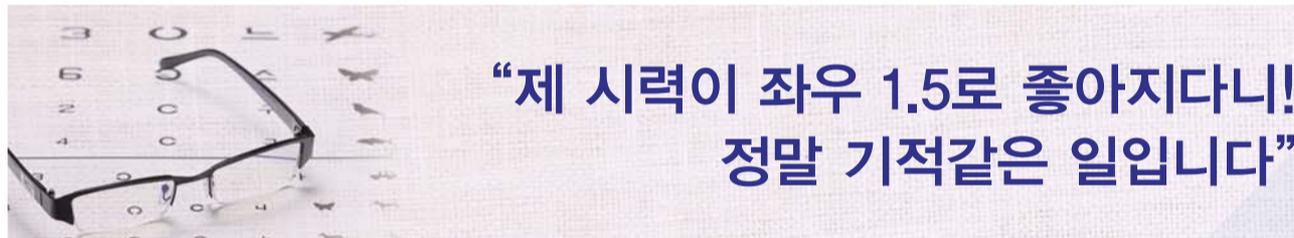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당회장님의 메시지와 수많은 사람이 불치, 난치병을 치료받은 것을 보며 너무 힘이 들어 차라리 죽고 싶었던 마음이 ‘나도 치료받아

야겠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니 삶의 소망도 생겼습니다. 또한 ‘질병은 죄로부터 온다’(출 15:26)는 말씀을 듣고 치료받기 위해 매일 하나님께 지난날에 지은 죄를 찾아 회개하며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2017년 11월, 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손수건 집회가 열렸습니다. 감사 이희선 목사님(만민 전 지교회 총지도교사)이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제 몸에 얹고 기도해 주셨는데, 성령의 불이 임해 온몸이 뜨거워지더니 즉시로 심한 두통과 고통이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편안함이 마음에 임하는 것을 느끼며 치료받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뒤 이전에 나타났던 에이즈 증상들이 완전히 사라져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며 제 모든 삶을 기도로 맡기니 이제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저를 위한 말처럼 느껴집니다. 주님을 만나 에이즈를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손수건에 권능을 담아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 시력이 좌우 1.5로 좋아지다니! 정말 기적같은 일입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시력이 매우 좋았습니다. 신체검사를 받을 때마다 좌우 시력이 2.0, 1.5로 측정되어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지방 출장이 잦아보니 운전을 많이 하였고, 어느 순간부터는 쉽게 피로하고 두통이 자주 느껴졌습니다. 운전하다가 머리와 어깨를 주물러줘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참 많았지요.

2014년 건강검진에서 좌우 시력이 1.2, 0.6으로 나와 그동안 느꼈던 피로감과 두통의 원인이 시력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력이 회복된 성도들의 간증을 많이 들어왔기에 저도 눈이 좋아지길 사모하며, 예배 때마다 당회장 이제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2016년, 다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시력이 1.2, 0.9로 측정되어 오른쪽 눈이 좋아진 것을 알았지요. 시력이 좋아진 것을 확인하니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더욱 사모함으로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받아갔습니다.

2018년 3월, 하늘을 보는데 이전에는 멀리 보이던 달이 또렷하게 가까이 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눈이 더 좋아진 것일까?’ 생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좌우 시력이 모두 1.5로 측정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1996년, 저는 할머니의 전도로 만민의 양 떼가 되었고 2002년부터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2004년 1월에 보험 영업을 시작하면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와 목자의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축복의 비결인 심은 대로 거두리라(갈 6:7)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먹었지요.

마침 그해 5월에 열린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 때 강단 회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정성껏 심었습니다. 당시 형(함중욱 집사)과 함께 환자들을 위한 휠체어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단에 장식된 회화를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요. 2008년 5월 헌신예배 때는 제 차를 팔아 헌물로 드린 후 하나님께서 순직하게 업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7월 십일조가 120만 원이나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후 9:7) 하신 말씀처럼 헌신예배 때마다 아내와 함께 정성을 다하니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회사에서도 계속 승진해 본부장이 되는 축복을 받았지요. 모든 감사와 영광을 신실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함진욱 집사 (39세, 2대대 16교구)

시력검사 결과지

구분	측정항목	검사 결과	비고	검사시점(검사일)	(안광학) 임상결과(안광학) 검사 결과(안광학)
시력	원시	1.2	0.6	18.05.04	18.05.04(18.05.04)
	좌우	1.2	0.6	18.05.04	18.05.04(18.05.04)
시력(좌우)	원시	1.5	1.5	18.03.09	18.03.09(18.03.09)
	좌우	1.5	1.5	18.03.09	18.03.09(18.03.09)

▲ 기도받기 전 : 1.2 / 0.6 (좌/우)

세정량계수 (μg/m³)	기준치	측정치	비고
하미황태 (PM ₁₀)	50	110	정상
시력(좌우)	1.5 / 1.5	1.5 / 1.5	정상
장막(좌우)	110 / 70	110 / 70	정상

▲ 기도받은 후 : 1.5 / 1.5 (좌/우)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민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백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감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삼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421-0889, 010-8927-207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